**로컬 머신에 작업 환경 구축하기**

오픈소스 기여의 시작은 기여하고자 하는 리포지토리를 내 계정으로 **포크**\_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 **포크** \_가 완료되면 내 GitHub 계정에서 **포크** \_한 리포지토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포크 받은 리포지토리 주소 앞에 **git clone**\_를 붙여 만든 명령어를 로컬 머신(내 컴퓨터)에 입력하면 로컬 머신에 해당 리포지토리를 **클론**\_\_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로, git clone 명령어로 리포지토리를 최초로 클론받는 경우, 해당 리포지토리의 기본 별명은 **origin**\_이 됩니다.

**소스 코드 최신으로 유지하기**

최신 소스 코드를 받아오려면 먼저, 최신 소스 코드가 담긴 리포지토리를 내 로컬 환경과 연결해줘야 합니다. 이럴 땐 **fetch** \_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.

**upstream**\_은 origin과 같이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식별할 수 있는 별명으로, 이름표와 같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대부분의 git·GitHub 튜토리얼에서 포크 받은 리포지토리는 origin, 원 리포지토리는**upstream** \_이라는 별명을 붙여 식별하기 때문에 이런 식별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
upstream 리포지토리에 있는 최신 변경분을 로컬 리포지토리에 가져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**git pull**\_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pull은 **fetch**\_와 **merge**\_를 합한 명령어입니다.

이외에도 **git pull**\_ 후, **rebase**\_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, rebase는 브랜치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, rebase를 사용하면 커밋 식별자가 변경되기 때문에,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